고은 불교 대하소설

〈 42 〉

선(善)은 선이 아니다

남각과 그의 동행자는 초열지옥에 이르렀다. 벌써부터 몽롱어리가 마구 그 뜨거운 열로 말미암아 찍찍찌직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 타버리고 마는 일이 없다. 아무리 타고 있어도 그 타는 일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이 타는 고통은 타고난 뒤의 잿더미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뜨거운 기름방울을 튀기며 지속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따위의 말도 나올 수 없었다. 오직 개나 돼지가 맞아죽을 때와도 다를 바 없는 짐규 뿐이었다.

남각의 입에서도 이런 짐승의 최후 보다 더 처절한 짐규를 이어가다가 그 짐규조차 막히다가하고 있었다. 그의 동행자도 때굴때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러대다가 말다가 하고 있었다.

이런 뜨거운 열 속의 고통 때문에 그들의 몸은 시꺼멓게 타는 일이 지속됨으로써 마치 방금 구워낸 숯처럼 되었으나 차라리 그들이 바라는 숯의 무감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영원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뜨거움 속의 타는 몸은 어떤 마취나 치료가 불가능한 현재로서 거기에는 어떤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악!"

하고 남각이 저도 모르게 나뒹굴다가 어느 불구덩이에 굴러갔다. 그 불구덩이에서는 파란 불빛으로 된 불덩어리가 솟아나오고 있었다.

벌써 그의 몸이 본격적으로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며 고통이 한층 더 깊어갔다. 이때는 비명조차 나올 수 없었다.

그때 남각은 그 불가피한 고통 가운데서 불현듯 생각하였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스스로 창하였던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의 업보를 받아야 하였던가…."

"악! 악업! 이 따위 업보가 무엇인가?"

따라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현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선업(善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고통속의 기적과도 같은 정신을 통해서 고통과 함께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선도 그 선 안에는 수많은 악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열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선의 반대인 악도 그것이 극악(極惡)의 세계조차 악의 힘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문에 그의 마음이 어느 만큼 진해졌다. 마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환자가 그 고통이 약간 감소되었을 때 바짝 말라붙은 입술에 희미무레한 미소를 머금는 것과도 같았다.

선악이 각각 절대가 아닐진대 그것으로 인한 낙과 고통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한갖 허망의 세계임을 알게 된 마당에야 그가 받은 고통 자체도 차츰 관념으로부터 경험의 대상으로 바꾸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됐다.

남각이 그의 동행자에게 다가갔다.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너무 많은 즐거움을 누린 빚(負債)일 뿐이요. 지금 그 빚을 갚고 있을 뿐이요. 우리가 살았던 사바세계에서 잔뜩 끼어있던 구름의 한 군데에 푸른하늘이 쟁 뚫린 구멍처럼 보인 적이 있지 않았오? 바로 그런 푸른하늘과도 같은 괴로움 없는 때가 올 것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지옥의 뜨거움을 이겨내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받고 있는 뜨거움의 업보는 누가 이겨내고 누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나도 당신과 똑같이 괴로움 속에 있오. 하지만 이 지옥의 괴로움이란 이름이 우리의 괴로움인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나는 당신과 입을 놀릴 힘도 없오. 그만 헛소리를 지껄이시오. 앗 뜨거워!"

그들은 어떻게 이곳 초열지옥으로 들어왔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누군가가 "초열지옥이다!" 하고 소리쳤을 때가 기억되고 있었다.

이 8열지옥의 하나인 초열지옥은 살생, 사음, 망어 등의 죄업으로 떨어지는 지옥이거니와 불에 달은 철판 위에 놓혀진 상태에서 벌겋게 달은 철봉으로 얻어맞거나 큰 석쇠에 얹혀져서 지져대는 대로 뒹어있거나 달아있는 불덩어리의 쇠꼬챙이로 몸을 궤어 불에 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당하는 고통의 지옥인 것이다.

과연 남각이 굴러떨어진 불구덩이가 다름 아닌 불에 달음대로 달은 철판위였다. 그 불구덩이 밑바닥이 철판인지도 모르게 그는 몸을 뒤틀어대며 고통을 견디어냈던 것이다. 몸을 뒤틀어댈 때마다 그것이 철봉으로 얻어맞기 때문인줄도 모른채.

사실 남각 일행은 땅속의 다섯지옥을 지나쳐 초열지옥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미 그들에게 지옥에 들어오자마자 그 지옥의 실감 때문에 기억의 힘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초열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몇가지 기억의 단편들이 떠오른 것은 남각으로서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앗!"

남각의 몸에 뜨거운 쇠꼬챙이가 꾸셔댔다. 몸 속의 내장이 타는 고통은 어떤 표현으로도 묻가능하였다. 말이란 사실에 대해서 가장 결핍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같은 고통 속에서도 아직도 더 무서운 고통 속으로 가야겠다는 절망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 자신을 다그치는 영문모를 힘이 솟아났다.

"이것보다 더 큰 것!"

이라고 그가 쇠꼬챙이 고통에서 다시 철봉의 고통으로 바뀌었을 때 외쳐댔다.

그러자 그는 초열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도대체 그가 받은 초열지옥의 시간은 얼마나 긴 것이었던가.

그 시간은 아무도 잴 수 없었다.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차라리 끝없는 공간으로서의 업화(業火)일 따름이다.

남각은 여섯 문을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는 심판의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혹한 심판관에 의해 죄 지은 자를 타일러 규정하는 일이기보다 심판의 대상인 장본인의 의지 안에 내재되고 있는 업보의 축적에 의한 것이기 심상이었다.

이를테면 심판관이란 자아가 선택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고대인도 '리그베다' 시대의 윤회설이나 이집트의 '타계(他界)에 있는 사람의 서(書)'의 응보설 및 고대 그리스의 올페누스교(敎)의 윤회설과 명부(冥府) 심판 신화들과 함께 불교가 말하는 전생(轉生)의 진리는 페르시아 선신 악신의 대결을 거치는 동안의 사후 심판신앙과 함께 거의 보편적이다. 바로 여기에서 지옥은 그 실재 여부를 떠나 우주를 구성할 때의 윤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가장 절실한 공간이기도 하다.

지옥의 첫인상은 섭씨 40도이상의 고온으로부터 시작한다. 습도도 엄청나거니와 그런 습도까지 다 태워버리는 뜨거운 초열지옥에서는 차라리 사바세계의 섭씨 40도 정도의 고온은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지옥에 이르는 동안은 아무런 심판관의 횡포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지옥을 내 집으로 삼고 고통을 받기 시작할 때는 그 고통을 집행하는 지옥귀(地獄鬼)의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남각이 불에 달구어진 쇠꼬챙이에 찔리는 그 극한적인 고초를 받을 때는 누가 그런 쇠꼬챙이를 찔러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다시 철판위에 밀쳐질 때 쇠꼬챙이를 든 한 상궂은 귀신을 순간의 의식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니 그 귀신의 소리도 들은 것 같았다.

과연 우두(牛頭)귀신은 소 머리에 사람의 몸통을 가진 귀신이고 마두(馬頭)는 말 머리에 사람의 몸통이었다. 그 귀신들은 철봉을 휘둘러대며 지옥중생을 쉬지 않고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아마도 지구의 직경 따위와 상관없는 지옥의 구성에서 그곳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기 십상이다. 우선 지표(地表)에서 가장 가까운 지옥계 맨 윗층의 등활지옥까지 내려가는 길이는 무려 5만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지구를 몇개 뚫어놓아야 지옥에 도달하는 거리가 될 터이다.

이런 지옥계의 고통의 크기나 고통받는 기간의 길이는 등활지옥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초열지옥은 등활지옥의 10만배나 되며 그 고통받는 기간은 1조(兆)6천2백년의 등활지옥에 8백5승(乘)의 정도이다. 그동안 남각들이 받은 고통은 사바세계의 고통 정도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남각은 등활 흑승 중합 규환 대규환 등의 지옥을 거치지 않고 초열지옥에 다달은 것이다. 그것은 남각의 기억 가운데도 없었다. 다만 여섯문을 지나는 한 영식이 심판관에게 늘어붙어서 그 심판관을 볼모로 삼았던 사실에 의해서 등활지옥에 가서 태어날 중생들까지 봉방 초열지옥의 중벌을 받게 된 터였다.

그림 · 조향숙

> 악이 악의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 선이 선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 바를
>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엄청난 고통도
> 고통의 이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지옥은 언젠가 고통의 끝 이어갈 지혜의 원소 살아있는 곳

그의 고통이 한없는 것이어서 어느 겨를 고통이 수그러드는 때가 없었으나 이제 그 한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참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이런 지옥의 고통에 떨어질 악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 꾀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니 고통에 대해서 아구 비명을 질러대며 나뒹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통에 일치함으로서 고통 자체가 되는 지혜의 비밀스러운 첫걸음에도 선듯 다가선 것이었다.

그때 "악!" 하고 비명을 질러대기보다 그 자신이 지은 지옥중생의 악업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그 자신이 지은 지옥중생의 악업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불은가득 법향가득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개점 1주년,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 – 자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 – 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 – 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 – 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 – 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 – 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 – 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